

의학도 마크 최씨



“이웃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토론토대(UT) 의학대학원 4년차 마크 최(27)씨. 대학 때부터 학교와 병원 등지에서 1천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경험을 쌓아 온 그는 최근 사이버 비영리기구를 설립, 한인의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의학도 및 치과전문의들과 함께 의료봉사단체 'Health Care Volunteer(www.health-carevolunteer.com)'를 만든 그는 세계 곳곳의 의학도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찾는 의료인들을 각 의료단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구촌 오지주민들에게 연결해주는 기교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 대표로 활동중인 최씨는 “책상에 앉아 책과 씨름하는 의대생들과 봉사의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그동안 활동해온 의료단체들과 의대생들을 연결해주는 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월 UT 및 미국 뉴욕대(INYU) 의대생 10여 명과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의료봉사를 떠날 예정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선 응급실에서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돌보고, 노숙자 보호센터에서 오갈 곳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시험공부보다 더 값진 인생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그는 “의료봉사라고 해서 반드시 의료기술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91년 가족과 함께 토론토로 이주한 그는 2002년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에서 생물공학(Biomedical Engineering)을 전공, 현재 다운타운의 마운트시나이(Mount Sinai)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그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진들은 환자와 업무 이외의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들만큼 빡빡한 스케줄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학창시절 뜻깊은 의료봉사를 통해 진정한 의학도의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 병원 실습교육에서 만난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마크 최씨.